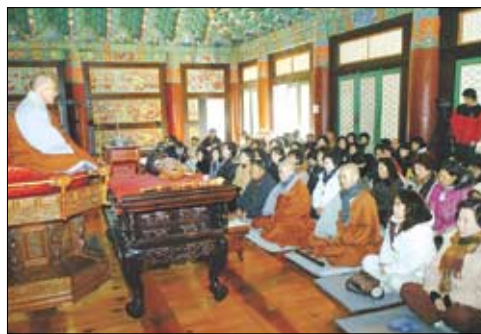




조계사 신도들이 서울을 출발해 봉암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새벽예불을 봉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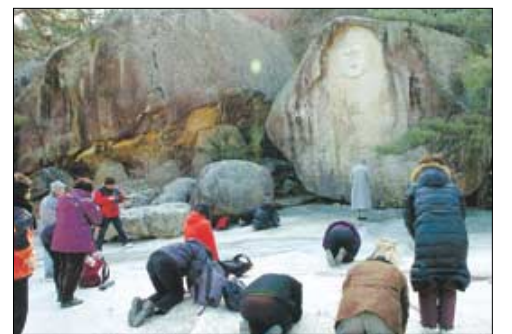
대웅전에서 법문을 듣기전 잠시 선정에 든 신도들.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한 신도가 대웅전 불단에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봉암사에서 회양산 계곡을 따라 10분정도 걸어가면 만나는 마애보살좌상을 참배하는 조계사 신도들.



1월24일 조계사 스님과 신도 90여명이 대중공양을 위해 봉암사 법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신도들은 봉암사 대웅전에 공양금을 전달하며 정진중인 스님들을 응원했다. 오른쪽 두 스님은 조계사 총무국장(맨 오른쪽) 지월 스님과 원주 도경 스님.

대중공양

부처님 재세시부터 내려온 전통  
최근엔 음식보다 '공양금'으로

대중공양은 불자들이 하안거(음력 4월 15일~7월 15일)와 동안거(음력 10월 15일~1월 15일)에 선원에서 정진중인 스님들께 음식과 생활용품 등을 올리는 일을 말한다. 대중공양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다. <사본율> 제13권에는 부처님 당시의 대중공양에 관한 일화가 나온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공덕을 묻는 신도에게 "비구들이 너의 밥 한 덩어리만 먹더라도 그 복덕은 한량이 없다"고 설한다. 이러한 대중공양 전통은 최근 들어 생필품이나 음식이 아닌 '공양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봉암사 주지 합현 스님은 "예전에는 과일이나 떡과 같은 음식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알아서 구입하도록 공양금을 보내 준다"고 설명했다. 장성 백양사(1월 9일), 의성 고운사(1월 16일)에 이어 세번째 현지 대중공양을 진행한 조계사 대중들은 설 이후 합천 해인사와 예산 수덕사에도 '온라인'으로 공양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중공양 문화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다.

# 정진 열기 뜨겁네요

조계사 신도들 '대중공양' 가던 날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하는 스님들의 구도열을 느끼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만 잃지 않으면 굳이 방부(房付)를 들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수행해 깨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돌아오는 겨울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100여곳 선원에서 2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 정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사 스님과 신도 90여명이 대중공양을 올리기 위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태고선원이 있는 문경 봉암사를 찾았다.

**# 회양산 선기(禪機)를 온몸으로 느끼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가 다시 찾아온 1월 24일 새벽 6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 두툼한 옷으로 무장한

90여 신도, 특별선원 봉암사로 동안거결제 스님들 찾아  
선원장 정광스님 "정견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 돼야"  
정성껏 모은 '공양금' 전달... 마애보살좌상 친견후 귀경

신도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신도, 겨울방학을 맞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보살, 휴가를 내고 대중공양에 동참한 거사 등이 두 대의 버스에 오른다. 신도회 이종대 사무총장이 봉암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문경 봉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현대 조계종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린 곳입니다. 1947년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청담·자운·우봉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결사를 시작한 곳이지요.

현재 80여명의 스님들이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좀처럼 가기 힘들다는 봉암사에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신도들은 이 사무총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봉암사는 1년에 단 하루, 부처님오신날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수행도량이다. 또 언론매체가 취재하기 가장 힘들다는 '난공불락'의 도량이기도 하다. 취재의뢰가 들어오면 전체 대중들이 모이는 '대중공

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봉암사다.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날 하루 일정이 공지되자, 신도들은 다시 자제를 가다듬는다. 새벽예불을 올리기 위해서다. 달리는 버스에서 예불을 올리는 모습이 낯설지만 그렇기에 더욱 심신을 가다듬는다. 조계사 원주 도경 스님의 집 전으로 새벽 예불이 시작됐다. 반야심경을 끝으로 예불이 끝난 후 도경 스님은 "사찰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수행활동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대중공양도 공부"라고 힘있는 정진을 당부했다.

**# 수좌스님들과 함께 한 사시예불 '장엄'**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문경 회양산. 그리 높진 않지만 큰 바위들이 온 산 전체를 호령하는 듯하다.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으니 봉암사의 전각들이 눈에 들어온다. 조계사에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엄마를 불러 대중공양에 동참한 대일(19·서울시 마포구 마포동)은 "너무 조용해 '진짜' 절에 온 것 같다"며 대중원, 조사전, 금색전, 산신각 등의 전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조계사 신도들은 대웅전에서 사시예불을 올리는 10시 30분까지 참선을 하며 선정(禪定)에 들었다. 잠시 후 태고선원에서 오전 정진을 마친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막 선원 생활을 시작한 듯한 젊은 수좌부터 여유가 느껴지는 구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스님들이었다. 선기(禪機) 넘치는 조계종 '최고' 선원의 수좌들을 직접 만나서인지 신도들의 눈빛은 더 반짝거린다. 그 래서인지 150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올리는 예불이 어느 때보다 장엄하고 힘찼다. 예불이 끝나자 태고선원 선원장 정광 스님이 조계사 대중들을 위한 소참법문(小參法門)을 나눴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진하라"고 당부한 정광 스님은 "평소에 하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일상생활에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 스님은 또 "정견(正見)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병술(病) 세 때에는 육신과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중공양에 동참한 조계사 대중들은 심시일 반 정성을 모은 공양금을 봉암사에 전달하고 마애보살좌상을 친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시 달리는 법당에 오른 신도들은 '이름' 저녁예불을 올리며 봉암사에서 훌륭한 선지식이 나와 중생들을 구제해주길 기원했다.

##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복향당

이제는 향을 피우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의 만복향당과 진품의 향기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의 향기 삶의 향기를 추구하는 주만복향당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거듭 태어난 저의 주만복향당이 지면을 통해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세계적 수준의 조향기술을 자랑하는 일본향당(Nippon Kodo)과 합작하여 만든 (주)만복향당이 엄선된 원료들로 만든 고급향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 드릴 것을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株)萬福香堂**  
MANBOKHYANGDANG CO., LTD.

- ◆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티 3층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 ◆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 전통향 시리즈 2 (보원 · 백화 · 침향)

**보원**  
침향과 백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고급 한방향  
-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  
-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기를 고르게 하여 정신을 맑게 한다

**백화**  
고대로 전해진 처방에 따라 천연 약재들로 구성된 아름답고 매력적인 향취의 한방향  
- 신체의 악기를 제거하고 양기를 보호한다  
- 피로로 지친 심신을 새롭게 한다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을 제거한다

**침향**  
침향과 한방의 독특한 향취에 청량감이 더해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전통 고급향

**진품 향기인 靑雲 아모레**

천연백단과 천연식물정유를 사용하여 강한 향균작용과 곰팡이, 빈대등 방충효과가 탁월하며 비티민D가 첨가되어 노화방지에 좋은 고급향입니다. 420년 전통의 일본 향당(NK)이 수년 동안 실험을 기울여 만든 신제품입니다. 아모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 세이문아모레 - 사랑의 선향입니다.

**외향 시리즈**

라벤더   백해   히노끼   대나무   아유어

**● 제품의 특징**  
상쾌한 진향이 긴 시간 남아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각종 악취(담배연기, 지아실의 습한 냄새등)를 원천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공기를 맑게 하여 줍니다. 특히 연기가 적어 연소 후 맑은 공기를 유지하여, 향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고급향입니다.